

출 장 보 고 서

I.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동북아 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은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지역의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구조문제를 중심으로 한 공통과제를 선정하여 토론하는 장이며, 공동연구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 심포지엄은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매년 순회 개최하며, 심포지엄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심포지엄과 함께 현지조사 또는 농촌견학을 겸하며, 지속적인 연구회가 되기 위하여 참가자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비용은 참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제6회 심포지엄은 최근 한중일 3국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의 농업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기업의 농업경영과 지역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이 심포지엄의 진행과 주제발표 등이 출장목적이다.

2. 출장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김 태 곤

3. 출장지역 및 출장기간

- 일본 도쿄
- 11월 26일(목)~29일(일) 3박 4일

4. 주요 조사내용

☐ 농림수산정책연구소

- 일본의 농업구조와 전업농정책에 관한 의견교환

☐ 전국농업회의소

- 일본의 기업진입과 농지제도 개선

□ 사료수출입협의회

- 세계 곡물수급 동향
- 일본 사료용 옥수수 수입실태

□ 국제심포지엄 진행 및 주제발표

- 주제발표 : 한국의 기업의 농업경영을 둘러싼 정책과 실태

5. 방문기관 및 면담자

今村 奈良臣	JA총합연구소 소장
酒井 富夫	토야마대학 교수
北出 俊昭	농협협회 이사
土田 清藏	농정조사위원회 사무국장
平林 光幸	농정조사위원회 조사연구부 연구원
槇平 龍宏	일본 농정조사위원회 조사연구부 연구원
鈴村 源太郎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주임연구관
河村 修身	전국농업회의소 사무국장대리
柚木 茂夫	전국농업회의소 신문사업본부장
江藤 隆司	사료수출입협의회 전무이사
平野 一雄	사료수출입협의회 총무부장
深谷 成夫	전국농지보유합리화협회 심의역
菅沼 圭輔	동경농업대학 국제식료정보학부 교수
董 彪	동경농업대학 대학원
倪 鏡	농산어촌문화협회 일중농업교류그룹 연구원
内山 智裕	일본 미에대학 생물자원학부 준교수
山村 理人	일본 홋카이도대학 교수
郭 慶海	중국 길림성농업과학연구원
武 拉平	중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
陳 慧萍	중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대학원
朱 俊峰	중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

6. 일정표

제6회 동북아 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 개최안내

주제 : 일반기업의 농업경영에 의한 지역활성화 : 토지이용형 농업을 중심으로

(1) 개최취지

- 영세한 농업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동북아에서 최근 채소·축산 등 집약부문

에서 기업과의 계약재배, 기업의 농업직영 등에 의해 대규모화하는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 한편 상품의 차별화가 곤란한 곡물이나 대두 등은 시장유통이 주류이고, 생산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기업의 농업경영이 곤란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기업의 농업경영이 지역활성화에 기대되고 있다. 실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 이 심포지엄에서는 미국·구소련·동구지역에 비교하여, 중국·한국·일본의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한다.

(2) 전체 일정

□ 참가자 회의

11월 26일(목) 19:00~21:00
미나미아오야마 회관

□ 현지조사

11월 27일(금) 10:00~18:00
농림수산정책연구소(일본의 농업구조와 전업농정책 동향)
전국농업회의소(법인경영, 일반기업의 농업진입 사례 등)
사료수출입협의회소(일본의 곡물수입실태 등)

□ 심포지엄

11월 28일(토) 09:30~20:00
미나미아오야마회관 대회의실

기조연설 酒井 富夫(일본 富山大學)

“企業と農業經營の統合による農業農村活性化の課題”

제1세션 토지이용형 농업의 기업진입정책의 방향성

(좌장) 酒井 富夫(일본 富山大學)

(발표자) 郭 慶海(중국 길림성농업과학연구원)

“중국의 식량산업화에 관한 분석”

武 拉平(중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중국의 식량생산규모와 효율”

金 泰坤(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에서 일반기업의 농업진입을 둘러싼 정책과 실태”

제2세션 주요 곡창지대에서 농업의 자본주의화 현상

(좌장) 金 泰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자) 内山 智裕(일본 三重大學 생물자원학부)

“미국 중서부에서 기업의 농업진입규제 동향”

山村 理人(일본 北海道大學)

“구소련·동구지역의 기업적 농업경영과 수직통합의 전개”

제3세션 토지이용형 농업의 기업진입의 실태와 과제

(좌장) 武 拉平(중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李 相學(부산대학 생명자원과학부)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일반기업의 발전가능성 : 밀양시 유기농
업사례를 중심으로”

陳 慧萍(중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중국 식량산업화경영의 발전과 과제”

朱 俊峰(중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중국의 농업산업화와 농촌노동력 유동의 관련성”

槇平 龍宏(농정조사위원회)

“일본의 일반기업의 농업진입 특징과 과제 : 지역농업과 기업
과의 공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체토론 기업과 농업경영의 결합형태의 과제와 전망

간담회

(3) 주최 일본 농정조사위원회

Ⅱ. 출장 결과

1. 보고 자료 : 한국의 기업의 농업진입을 둘러싼 정책과 실태

東北亜農業農村発展国際シンポ
2009.11.28

韓国における企業の 農業経営をめぐる政策と実態

金 泰 坤 韓国農村経済研究院

目 次

1. 議論の背景
2. 企業参入と農地制度の改正
3. 企業の農業経営方式
4. 土地利用型の農業経営の事例
- 営農組合法人 ナツア(Natur) -
5. 参入拡大のための課題

1. 議論の背景

- 農業は生産活動を通じて所得を創出すると同時に人や農地、資本等を活用して地域農業や地域社会を維持する、重要な役割をする。
- 地域資源の均衡が崩壊し地域農業の拡大再生産ができない地域が広がっている。背景には、人力問題や市場開放の影響がある。
- とくに、農村地域の高齢化率は、都市地域に比べ20年ほど先行しているし、最近加速化されている。

1. 議論の背景

- 農業経営の規模拡大が遅滞されている。施設型の拡大は速いほうであるが、土地利用型は労働力や農地の制約で遅れている。
- 農産物の輸入国は、市場開放が進むにつれて生産縮小や所得減少という現象が生じる。2006年以降、農家の1戸当たり所得が減少する。
- 土地利用型において、地域農業の維持や所得確保が大きな課題になっているなかで、企業による農業経営が議論されている。結果はまだ出てない。

1. 議論の背景

- 実際に、畜産部門をはじめとした施設型は一部成果がみられる。しかし、土地利用型部門では親環境農業等による企業経営の事例はあるが、その展望について判断するにはまだ難しい。
 - 規模面からみて企業的な経営効率を発揮しかたい。
 - 農地制度と関連し農地貸借に対する規制強化が障壁になっている。

図 1 農家の戸当り経営規模の変化,1970-2007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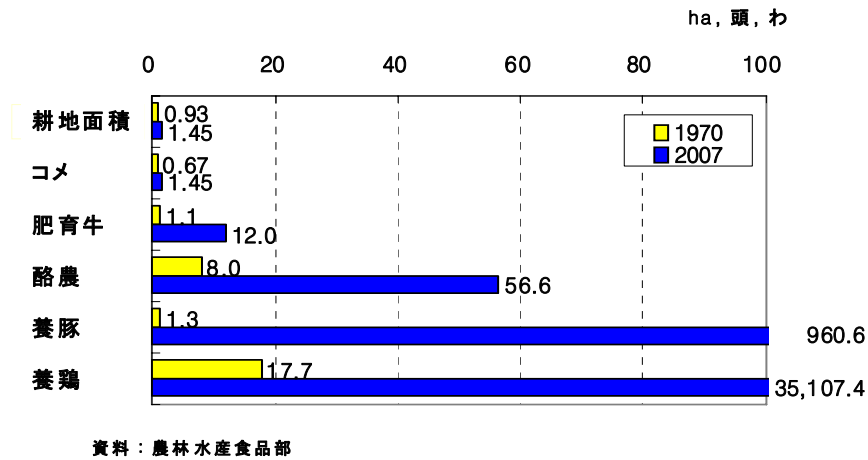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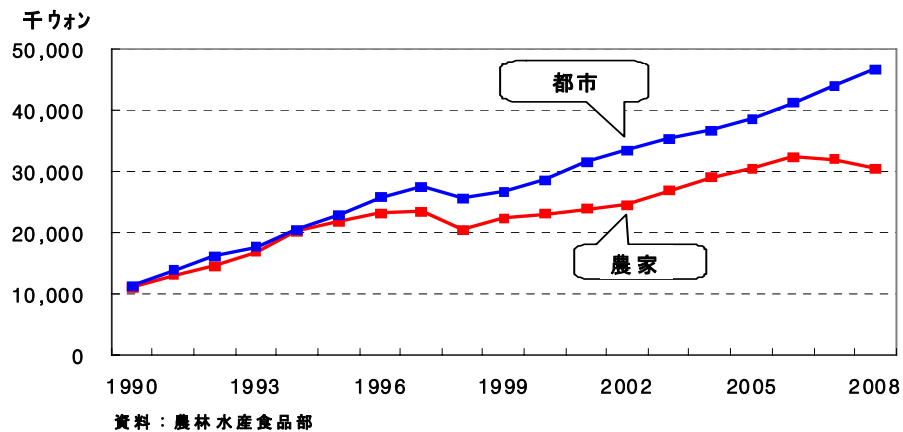


図 2 韓国の都市農業間の所得格差



2. 企業参入と農地制度の改正

■ 1994年、個別経営の新規参入の拡大

- 市民や都市資本の参入拡大のため、農地取得規制を大幅緩和、利用規制強化
 - 取得目的(自耕)通り、利用すべき(耕作者主義)
 - 賃貸禁止という“出口規制”に転換
 - 違反した場合、“農地処分”を命令
- これが農地流動化を制約し、違法が増加

■ 2002年、農業生産法人の農地取得の緩和

- 株式会社形態の農業生産法人の農地所有を認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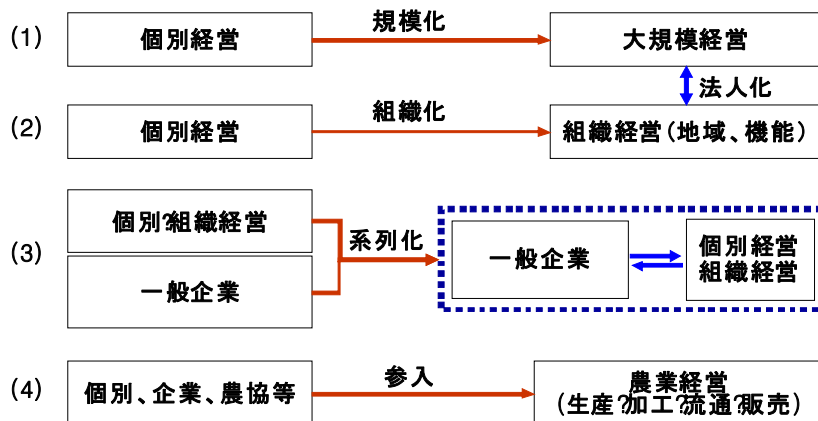
2. 企業参入と農地制度の改正

- 2002年, 市民の市民農園用の農地取得を認定
 - 1000㎡未満の市民農園の所有を認定
 - 市民農園目的の“農地賃貸”を認定
- 2005年, 農地賃貸を部分的に認定
 - 韓国農村公社(農地銀行事業)を通じた賃貸に限定し認定
 - 農地流動化の促進が目的
- 2006年, 農業生産法人への出資制限の緩和
 - 企業等の出資限度は総額の4分の3まで
 - 土地利用型での企業の農業参入の機会
 - 企業の生産法人への出資増額
 - 企業の生産法人の設立増加

3. 企業の農業経営方式

- 直接的な農業経営(直営農場)
 - 貸借経営が可能であるが、みられない。
- 農業生産法人の設立
 - 少ないが、事例がある(営農組合法人 ナツア事例)。
- 農業生産法人への出資
 - 加工や流通中心の法人に多い。
- 農家の生産部門と企業の加工流通部門の連携
 - 畜産部門に多い。

図 3 農業経営の発展類型



4. 土地利用型の経営事例：営農組合法人 ナツア

■ 概要

- ナツア(Natur)は、企業が設立した営農組合法人
- 一つの集落のすべての農地を借りて親環境農業を営
- 自治体(郡)の誘致でのこの地域に参入
- 高齢化されている地域において、企業のもつ販売力の有利性を活かし、付加価値を高めた“企業と集落の共生事例”

4. 土地利用型の経営事例：営農組合法人 ナツア

■ 地域概況

- この集落は、水害や旱魃、雪害等の自然災害がほとんどない無災害地域
- 水が豊富、田は基盤整備
- 作物は稲や野菜等
- 2007年現在、農家 73戸、農業従事者 150人、うち65歳以上が73人

4. 土地利用型の経営事例：営農組合法人 ナツア

■ 設立経過

- 親会社(ゲビス・ランド)は、有機資材を生産
 - バイオ肥料、液肥等の資材を生産
 - 種苗生産
- 2003. 11, ナツア(Natur) 居昌農場を設立
 - 農地 40ha賃借、親環境の米や野菜生産
- 2004. 9, ナツア(Natur) 南海農場を設立
 - 農地 13ha賃借、新環境の米や野菜生産

4. 土地利用型の経営事例：営農組合法人 ナツア

■ 主な活動

- 集落単位のすべての農地を借り新環境農業、直接販売
- 貸借条件
 - 15年間の長期契約、小作料は5年ごと更新
 - 小作料は、1,350ウォン/坪(地域平均より50%高い)
- 雇用
 - 常時雇用4人(農場長, 配送, 人力, 機械)
 - 1日 20-30人雇用, 労賃は日当で
 - 男 50,000ウォン, 女 27,000ウォン
 - 年間延べ 4,5000人雇用

4. 土地利用型の経営事例：営農組合法人 ナツア

■ 主な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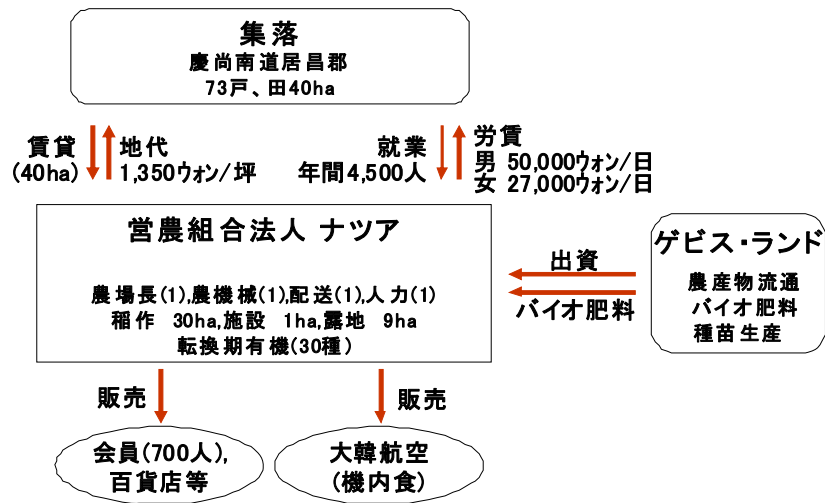
- 販売
 - 親企業のゲビス・ランドが販売担当
 - 会員制, 百貨店等を通じ販売
 - 大韓航空の機内食として有機野菜を納品
 - 会員は700人、会費は月 72,000ウォン(特別会員 98,000ウォン)
 - 月4回配送, 1回当たりコメや野菜等7-9種、2.8-3.2kg
 - 一般販売は、コメ1kg当たり6,000-8,000ウォン
 - 野菜類は200g当たり2,000ウォンで販売

4. 土地利用型の経営事例：営農組合法人 ナツア

■ 地域に対する効果

- 労働力の弱体化により農業生産が縮小され、農業が衰退されている地域で、企業が雇用や付加価値を創り、集落は所得向上効果がある。
- ナツアは2009年春、親企業のゲビス・ランドの倒産で農業経営から撤退したが、現在、集落が営農組合法人を設立し経営している。
- 企業と集落の協力関係のもとで、集落単位の農業経営の新たなモデルと評価できる。

図 4 ナツアの経営概要



5. 参入拡大のための課題

- 地域農家との競合や農地投機の防止を前提
 - 地域社会の発展に興味をもつ地域内の中小企業の参入が大事であるが、地域企業が少ないのが現状
 - 新たな経営方式やビジネスモデルの発掘
 - 貸借禁止の農地制度の改正。条件付きあるいは地域限定の貸借経営を認定
- (以上)

2. 일본에서 기업의 농업진입을 위한 농지제도 개정

(1) 구조개혁특구제도(2003년)

- 2003년 ‘구조개혁특구제도’에 의해 처음으로 극히 한정된 지역에서 ‘농지임차방식’으로 일반기업이 농업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단지 농업생산법인은 ‘농업내부’로 간주되어 각종 정책자금이나 국가 보조사업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기업은 제외된다.

(2) 특정법인임대제도(2005년)

- 구조개혁특구에서 기업에 의한 지역농업 진흥효과가 인정되고, 동시에 기업

의 농업진입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 9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을 개정하여 임차방식에 의한 농업진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특정법인임대제도’가 도입되었다.

- 시정촌이 지정한 ‘유휴농지 또는 유휴화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시정촌의 중개에 의해 농지를 알선 받거나 지역 농가와 협력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취지의 협정을 시정촌과 체결한 경우에만 진입할 수 있다. 유휴농지를 포함한 한정된 지역에서만 경영이 허용되었다.

(3) 일반기업의 임차경영 완전허용(2009년)

□ 농지의 소유와 이용의 분리

-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농지이용 확대를 도모하면서 일반기업의 농업진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의 임차경영을 완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이 2009년 6월에 이루어지고, 12월 중에 실시된다.

표 1 일본의 일반기업의 농업진입제도

연도	진입제도	비고
2003	구조개혁특구제도	○ 특구지역내 임차경영 허용
2005	특정법인임대제도	○ 임차경영의 전국 확대 -유휴농지 등에 한정된 부분적 허용
2009	농지법 개정	○ 임차경영의 완전 허용 -소유와 이용의 분리 -해제조건부 일반기업 등의 진입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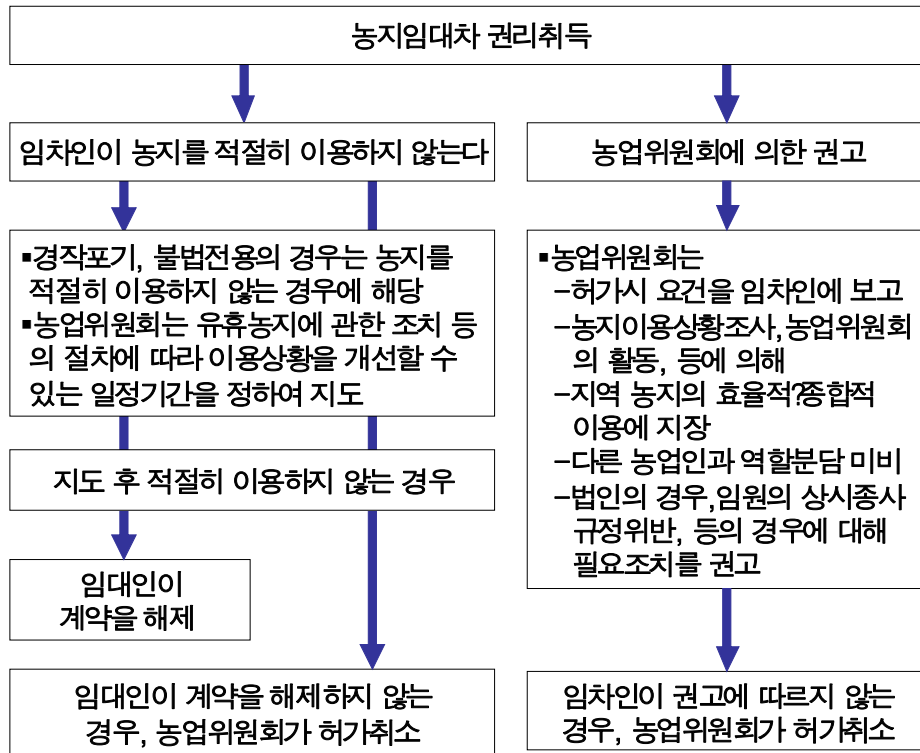
□ ‘해제조건부’ 일반법인 등의 진입허용

- 해제조건부 농지임차 허용이란 농지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를 해제할 수 있는 조건부 계약이며, 지역의 다른 농업인과의 적절한 역할분담 하에서 농업경영을 계속적·안정적으로 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 ① 농작업 상시종사자 이외의 개인
 - ② 농업생산법인 이외의 법인(업무집행임원 중 1인 이상이 경작 등 사업에 상시 종사할 것)에게 임차경영을 허용한다는 취지다.
- 종전의 임차경영 허용범위는, ① 농작업 상시종사자, ② 농업생산법인에 한정되었으나, ③ 농작업 상시종사자 이외의 개인, ④ 농업생산법인 이외의 법인(‘일반기업’)도 임차경영에 의한 농업경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지역농협(연합회 포함)도 총회에서 특별결의 등을 과정을 거쳐 농지임차에 의한 농업경영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해제조건’이란

- 농지 집단화, 농작업 효율화, 기타 ‘주변지역에서 농지의 농업적인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농업위원회는 권리취득을 허가하지 않는 요건이 신설되었다.
- ‘주변지역에서 농지의 농업적인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하기와 같은 사례이며, 이러한 요인이 예상되는 경우 허가를 하지 않으며, 사후 이러한 협상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마을영농이나 전업농 등의 규모확대에 의해 이미 농지가 일정단위로 단지화된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서 그 이용을 분단하는 권리취득
 - ② 수리조정에서 지역농업인이 일체적인 조정을 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영농을 행하여 지역의 활동을 저해하는 권리취득
 - ③ 무농약·저농약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재배를 행하는 지역에서 농약사용을 행하여 무농약재배 등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권리취득
- 해제조건부 임대차 허가 시 농업위원회는 미리 시정촌장에 통지한다. 시정촌장은 농지의 농업적인 적절하고 종합적인 이용을 확보한다는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업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또한 농지법 개정법안 심의과정에서 중·참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지임대차 규제를 완화한 결과, 임차인이 철수하는 경우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농지를 명도하는 경우의 원상회복, 원상회복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의 손해배상, 중도 계약해제 시의 위약금 지불 등에 대해 계약상 명기하도록 지도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결의가 행해졌다(중의원 농위 부대결의 제4, 참의원 농위 부대결의 제4).

그림 1 임대차 계약해제 또는 허가취소 흐름



6. 수집자료

- 농림수산정책연구소, “日本の農業構造と担い手政策の動向”, 2009. 11. 27
- 전국농업회의소, 「農地法等改正法政省令等説明会資料 ①」, 2009. 11. 12
- _____, 「農地法等改正法政省令等説明会資料 ②」, 2009. 11. 12
- _____, “こうなる農地制度”, 2009. 7
- _____, “活動案内”, 2009. 9
- _____, “認定農業者・特定農業法人・特定農業団体の認定状況”, 2009. 10
- _____, “新規就農・人材対策事業の内容と活動実績”, 2009. 7
- _____, “こうなる農地制度”, 2009. 7
- _____, “戦後農政の展開過程”, 2009. 11
- 사료수출입협의회, “飼料穀物貿易の現状と課題”, 2009. 11. 27
- _____, “世界穀物需給動向”, 2009. 11. 27
- _____, “世界穀物需給・価格関連統計”, 2009. 11. 27
- 今村奈良臣, 「JA総研REPORT」, 2009. 10
- 北出俊昭, “韓国における直接支払い制度”, 「2006年度海外農業情報分析事業」 国際農林業協
力交流協会, 2007. 3
- 酒井富夫, “解題：企業と農業経営の統合による農業農村活性化の課題”, 2009. 11. 28
- 郭慶海, “중국의 식량산업화에 관한 분석”
- 武拉平, “중국의 식량생산규모와 효율”

金 泰坤, “한국에서 일반기업의 농업진입을 둘러싼 정책과 경영실태”
内山 智裕, “미국 중서부에서 기업의 농업진입규제 동향”
山村 理人, “구소련·동구지역의 기업적 농업경영과 수직통합의 전개”
李 相学,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일반기업의 발전가능성 : 밀양시 유기농업사례를 중심으로”
陳 慧萍, “중국 식량산업화경영의 발전과 과제”
朱 俊峰, “중국의 농업산업화와 농촌노동력 유동의 관련성”
槇平 竜宏, “일본의 일반기업의 농업진입 특징과 과제 : 지역농업과 기업과의 공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岡本享二, 「CSR入門」日経文庫1040, 日本経済新聞社, 2008. 12
高知工科大学, 「農業ビジネス学校」, New York Art, 2009. 11
青山浩子, 「強い農業をつくる」, 日本経済新聞社, 2009. 6

(이상)